

“무주만의 육아정책 수립해야”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협약 추진

최윤선 무주군의회 의원, 육아정책 수립·교육복지예산 확대 촉구

최윤선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인 최윤선 의원은 “무주만의 육아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인구특성 인구소멸이 가속될 수 밖에 없다며 무주군의 인구 및 육아정책, 교육예산 투자의 재정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윤선 위원장은 지난 6일 열린 제 30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무주군 육아정책 수립 제안 및 교육복지예산 확대 촉구’ 5분 발언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육아지원정책이 다져져 가정과 저소득가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돼 있고 국비 내사에 따른 정책에 의존해 인구유출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윤선 위원장은 “통계청 조사에서 2025년 합계 출생률이 0.65명까지 낮

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세 가정 중 한 가정은 자녀가 없는 시대가 다가왔다”며 “무주군도 이제는 가정의 재산과 소득기준보다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윤선 위원장은 무주군이 출산률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복지예산 확대로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주군의 향후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2조6047억원의 총 사업비 가운데 교육분야 예산은 0.7%인 173억원에 불과하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으나 위기의식이 부족하고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지 않을 뿐”이라며 육아정책 및 교육복지예산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윤선 위원장은 이어 “아동이 없으면 어린이집과 학교가 사라지고 그곳

에는 젊은 가정이 더 이상 생활하기 어려워 인구소멸이 가속된다. 아이들이 있어야 무주가 있다는 절박감과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직자뿐 아니라 전 군민이 함께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윤선 위원장은 지난해 방문한 일본 나기초군은 인구 6천명이 안 되는 소도시이지만 육아조건이 배치, 일시돌봄 육아 서포트, 보호자 당면제 보육 등 다양한 육아정책과 교육복지예산 확대로 함께 출생률 2.95명을 기록했다고 무주군도 이러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데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한 그는 모두가 관심을 갖고 무주만의 새로운 육아정책과 교육복지정책, 예산확대를 통해 기적을 만들어보라며 5분 발언을 마쳤다.

/무주=전문선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축하 행사 참석

최훈식 장수군수는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축하 행사에 참석해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협약과 철도 역사에 이은 첨단 유치를 논의했다.

축하 행사에서는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의 의미를 알리고, 그동안 경과를 보고하는 한편, 경유지 단체장들 간 남부거대경제권 구축 조성협약 체결을 추진했다. 이 자리에는 광주·대구 광역시 시장, 경유지 시군 단체장 및 의원, 지역 국회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달빛 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를 축하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축하 행사에 참석해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협약과 철도 역사에 이은 첨단 유치를 논의했다.

한편 ‘달빛철도’는 영호남인 30년 숙원사업으로 광주-대구를 잇는 총연장 약 200km의 연결 철도로 8개 자치단체(담양, 순창, 남원, 장수, 함양, 거창, 합천, 고령)를 경유하며,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은 지난 6일 ‘함께하는 화재 예방, 안전 점검 생활화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겨울철 화재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함께하는 화재 예방, 안전 점검 생활화로’

무주군·무주소방서·무주군의회소방대, 화재 예방 캠페인 전개

무주군은 지난 6일 ‘함께하는 화재 예방, 안전 점검 생활화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겨울철 화재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무주반딧불시장 주차장 입구에서 진행된 이날 캠페인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무주군청 담당 공무원들과 무주소방서, 무주군의용소방대 관계자 등 50여 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화재 예방 안전 수칙이 담긴 홍보물과 보건의마스크(KF94)를 배부하며 △노후 공동주택과 전통시장, 요양시설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홍보를 비롯하여 △소화기 비치 및 사용 및 점검 방법을 공유했

다. 또 △소화진 인근 적치물 제거와 난방기 등 사용 시 안전 수칙, △문어발식 콘센트와 노후 멀티탭 사용 지양에 관한 내용을 공유했다.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박각춘 과장은 “이번 점검은 자연특발시 무주방문의 해를 안전하고 설 명절을 보다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겨울철 화재가 대부분 작은 부주의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에 집중해 화재 예방을 위한 작은 실천, 화재 발생 시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공유한 만큼 캠페인 효과에도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진안군, 도로명 변경 의견 수렴·주민설명회

보한길 외 2건 → 한승헌길 변경... 안전면 출신 인권변호사 故한승헌 前감사원장 이름 반영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은 기존 도로명 ‘보한길’, ‘보한1길’, ‘보한2길’을 한승헌길로 변경하는 도로명 변경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주소사용자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보한길’, ‘보한1길’, ‘보한2길’은 진안군 안전면 노성리 보한마을의 행정지명과 일련번호를 합성해 만들어진 도로명이며, 변경안으로 제출된 ‘한승헌길’, ‘한승헌1길’, ‘한승헌2길’은 안전면 노성리 출신의 인권변호사 故한승헌 前감사원장의 이름을 반영했다.

도로명 변경 신청은 해당 주소사용자(세대주, 건축물대장상 건물소유자, 민법·상법에 따른 법인 대표자, 사업자

등록 명의자, 건물 등기부상 소유자, 외국인 등록을 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의 5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시 접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진안군은 보한길 외 2건 도로명 변경 신청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공고 및 2월 14일 15시 보한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오는 2월 20일까지(20일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견제출은 해당 도로명의 주소사용자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내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20일간 의견수렴 후 진안군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심의 결과 공고 및 신청인정보, 주소사용자 과반수 서면동

의, 결과에 따른 고시(공고) 절차를 거쳐 기존 도로명 존치(보한길, 보한1길, 보한2길) 또는 도로명 변경(한승헌길, 한승헌1길, 한승헌2길)이 결정된다.

단 주소사용자의 4/5이상 동의 시 서면동의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는 생략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도로명 변경은 각종 공적장부(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건축물대장, 농지대장 등)의 주소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이니 보한길, 보한1길, 보한2길 주소사용자 및 주민분들의 많은 의견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설 명절 전 준비 직불금 지원

무주군이 농업 활동을 통한 환경보전과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5,578 농가, 3,700ha 규모에 준비 직불금 9억 3천 6백여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예정으로 기본소득을 지원해 고품가·경기침체 속 농업인들의 송မွ를 띄우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상은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무주군에 거주하며 군 내에 위치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들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된다. 단 가는 1ha당 27만 원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신상범 소장은 “무주군 농가 준비 직불금은 쌀 농가 준비 직불금으로 논 농업 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를 지원해오다 지난

2020년 공익직불제 통합·개편이 되면서 쌀·밭 직불 구분 없이 통합해서 지원을 해오고 있다”며 “지난해 발생했던 냉해와 폭우, 태풍, 과수화상병 등의 농업재해 여파로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에 따르면 2019년부터 5년간 지원된 직불금 규모는 총 47억 4천여만 원으로 대상 농가는 6개 읍면 21,675농가(14,869ha 규모)에 이른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지역 소식통

최훈식 장수군수,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격려

장수군은 지난 6일 설 명절을 맞이해 관내 이동복지시설과 노인생활시설 12개소를 방문해 종사자 및 이용자들을 격려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항상 장수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께 감사하다”며 “종사자 및 이용자분들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설 명절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마음을 전했다.

한편 군은 소의계층이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441가구에 44,100원 상당의 행복꾸러미 세트 및 이웃돕기 성금을 지원했으며, 또한 독립유공자 유족 67가구는 장수사랑상품권 10만원을 전달 위문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설맞이 시가지 환경정화활동 추진

진안군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7일 진안군청 환경과 직원 등 약 40여명이 참여해 진안읍 시가지 내 환경정화활동을 추진했다.

이날 진행된 정화활동은 명절 연휴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 진안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더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요 시가지, 도로변, 취약지 곳곳을 중심으로 대청소를 추진했다.

진안군은 이와 함께 설 명절 대비 생활폐기물 관리 대책을 수립해 연휴기간 중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적체와 방치 쓰레기로 인한 민원 발생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상황근무반과 기동청소반을 편성해 긴급수거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명절 기간 급증하는 포장폐기물에 대해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명절선물 과대포장과 제품의 분리배출 표시의 집중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설 명절을 맞이해 진안군을 방문하는 귀성객을 비롯해 관광객들에게 청결한 진안군 이미지로 아름다운 고향의 모습을 선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